

목요담론



이경웅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시민이 중심되어 만드는 서귀포 문화도시의 중요성

지금 서귀포 지역은 시민을 중심으로 문화도시센터와 지역예술가 그리고 행정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문화도시라는 것이 선정된다고 당장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의 활력과 시민사회의 성숙을 다름아닌 문화로 풀어가겠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하나의 목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의 문화에 대한 애정은 오랜 시간 축적돼 만들어 왔다. 전국어디에도 없는 이중섭문화거리가 조성

돼 지금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의 경제와 문화예술의 가치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버려진 폐 관광극장을 문화 예술로 회생시켜 지금은 작지만 독특한 예술극장으로 다시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의 명소가 되어 있다.

이외에도 서귀포에는 폭풍의 화가 변시지를 비롯해 소암 현중화, 이알종 화백 등 수 많은 예술가들의 터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명성과 함께 시민들, 주민들, 아이들의 이야기를 도시의 문화로 만드는 작업을 서귀포 시민과 문화 행정이 하고 있다.

문화도시 선정은 서귀포 시민들에게 또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단지 문화가 아니라 모두가 문화가 되어 지역의 가치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서귀포 시민들에게 문화도시를 함

께하는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인 것이며, 또다른 형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도시재생인 것이다. 서귀포 문화도시가 말하는 노지문화란 결국 이 가치를 표현하는 함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귀포 시민들에게 문화도시 선정 사업은 과정에 따른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참여하며 마을마다 가진 다양한 문화 자산을 우리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문화도시인 것이며, 이를 통해 서귀포는 도시의 가치를 시민의 힘으로 지속해 시켜 내는 것이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행정에게 요청 한다면, 먼저 서귀포시 행정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문화행정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문화도시란 문화행정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도시

전체를 말하는 사안으로 서귀포시 행정 부서 간의 역할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제주도에 대한 당부가 있다. 문화예술 섬을 지향하는 도정으로써 문화도시는 도정 철학을 만들어가는 핵심 가치가 될 것이며, 도정의 협업 역시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는 제주시 행정 역시 동일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기관과 행정의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 시민주도라는 이름으로 뒤에만 서있는 것이 아닌, 시민과 함께 가는 행정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많은 지역의 도시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쟁은 결국 시민들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여 주느냐와 이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문화도시 선정에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편집국 25시

맹탕 국감



이소진
정치부 기자
sj@halla.com

카롭지 못했다.

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제주지역 기초연금 탈락자 속출로 선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목적하지 못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 수년간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현안 사업인데도, 한 의원은 “복지부에 건의하라”는 뒷북 주문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제주현안이 뒷전이 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국 법무장관 임명 반대 의견년 것이 부적절했다는 등의 지적에 적지 않은 시간이 사용됐다.

게다가 한 의원은 국감장에서 자신이 관광했던 제주 여행지의 관광 가이드가 이야기 한 제주지방 색깔 유래에 대한 팩트 확인과 자신이 가진 지방 사진의 지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질의였다고 포장하기도 민망하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앞으로 제주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제주 현안에 대한 해법과 지적들을 짚어내는 국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맹탕. 맹탕처럼 아주 싱거운 국을 의미한다. 옹골차지 못하고 싱거운 일이라는 의미로 통상 사용된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 비유하고 싶은 단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중에 하나다. 국정 전반을 조사하고 감시·비판 기능을 발휘한다. 이번 제주도 감사에서도 이러한 권한이 적절히 행해지길 도민들은 원했다. 하지만 현실은 맹탕이었다.

기존 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지적들이 리바이벌 되는 수준에 그쳤다. 제2공항 건설사업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추진의 필요성, ADPI 용역 폐기에 대한 국토부 사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기본계획 고시 연기 등에 질의는 있었지만 날

뉴스-in

“공공서비스 강화 사업 추진 하겠다”

JDC, 국감자료 적극 해명

○...JDC는 8일 국회 이현승 의원실에서 배포한 “JDC가 사업부지 매매·시세차익으로 1조 753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보상비를 후려친 사업”이라며 “지난 8월 심의 처리가 됐다”는 등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9일 해명.

JDC는 이날 자료를 통해 “JDC가 투입한 조성원가를 반영하고, 매각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한 추정가액을 재산정할 경우 시세차익은 2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강조.

이어 “JDC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공공서비스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 조성원가자

우도 ‘해중전망대’ 표류중

○...우도 앞바다에 추진중인 ‘해중전망대’ 사업이 주민들간 찬반 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제주 현안에 대한 해법과 지적들을 짚어내는 국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사설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더 들어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지 4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공항을 둘러싼 용역 부실과 의혹은 여전히 속시원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공론화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의원들은 공론기간이 길었어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배제됐던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민들이 보기에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국토부에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해서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열망합니다. 이제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지 4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공항을 둘러싼 용역 부실과 의혹은 여전히 속시원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제2공항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마치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듯이 강행할 일이 아니라면 애깁니다. 참여하게 찬·반으로 나눠면서 도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도 그래서 공론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가 걸린 사안만큼 제기되는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겠습니까. 국토부와 제주도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2공항이 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지 냉철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제주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지 있다

제주어가 사라져 가는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유네스코는 2010년에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에 제주어를 선정했습니다. ‘사라지는 언어’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합니다. 유네스코도 머지않은 장래에 제주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음을 우려한 것입니다.

소멸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이 제정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제주어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주어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등에 소홀한 탓에 학교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모든 초중고에서는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제주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가운데 제주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있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 전문 강사도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학생들을 상대로 올바른 제주어 교육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전문 교사 양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어가 미래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문적 자질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제주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을 제시했지만 그 뿐입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보고서상의 계획에만 그치면서 실천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좀 더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제주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 494,244㎡(분할매매 가능)
- 2차선 도로점 시멘트 도로점

기타문의 전화요망

☎ 010-5110-566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2005년 원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 도내 언론사 최초 ‘여객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초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노형에서 10분 거리

- 독립적인 5개의 고품격 분향실
-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찬제공)
-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국산품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